

지역민 사랑 유별... 기획전 열리면 시내 모든 상가에 포스터

관주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 공립 미술관의 길을 묻다

<9> 아마구치현립미술관

1979년 가즈키 야스오 유족 작품 기증 개관
아마구치현 연고 작품 수집·보존·연구 역할
소장 작품전·순회전·정기 기획전 폭넓은 전시

탁 트인 1층 로비 카페 지역민 즐겨 찾는 명소
서포트 제도 도입해 자원봉사자들이 관람 안내



일본 아마구치현립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기획전 '화려한 프랑스 회화'를 감상하고 있다. 아마구치현립미술관은 기획전을 비롯해 소장품 상설전, 지역 미술단체 초대전 등 지역 연구 미술작품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아마구치시 가메야마공원에 자리한 아마구치현립미술관.



수목화 대가 셋슈가 조경한 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로비.

직접 방문한 일본 아마구치시(市)는 한국의 1960~70년대를 보는 듯한 정겨운 분위기였다. 세련된 도시모습 보다는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마구치현은 일본 근대 서양화 거장 가즈키 야스오를 비롯해 무로마치시대(15세기) 대표 수묵화가 셋슈, 셋슈 화풍을 이어 받은 에도시대 운코쿠파(雲谷派), 가노 호가이, 모리 칸사이, 현대작가 고바야시와 사쿠 등 일본미술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작가를 배출했다.

아마구치현립미술관을 가기 위해서는 일본 고속철 신칸센을 타고 신(新)아마구치역에서 내려 다시 지역 기차를 타고 아마구치역으로 가야한다. 지역 기차 장면 밖 풍경은 어느 한국 시골과 다르지 않아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마구치역에서 미술관은 1km 정도 떨어져 있어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한다.

아마구치현립미술관은 히로시마현립미술관 못지않은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미술관이 있는 가메야마공원은 셋슈(雪舟)가 만든 정원으로 셋슈의 산수화를 그대로 옮겨 온 듯한 풍경으로 유명하다.

또한 미술관 주변길 '파크 로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 만큼 멋진 사계절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보통의 일본 미술관이 그렇듯 아마구치현립미술관도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아마구치시 중심부에 자리해 접근성이 높다. 주변 1km 이내에 아마구치시청·현청·소방서 등 관공서 뿐 아니라 현립박물관·현립도서관 등 문화공간, 도서관·호분지·후분지 등 시설, 아마구치시비에 루기넵성당, 고잔공원 등 관광지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미술관에서 기획전 열릴 때면 거의 모든 상가에 포스터가 붙을 만큼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도 예

였다. 1979년 개관한 아마구치현립미술관은 나지막한 언덕을 이용해 조성되며 실제 면적에 비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미술관이 개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 대표 작가인 가즈키 야스오가 있었다. 1970년대 초 가즈키 야스오의 유족들은 작품 57점을 아마구치현에 기증했고, 시는 체계적인 전시, 보존, 연구를 위해 현립미술관을 개관한다.

미술관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은 7073㎡다. 전시실은 기획전이 열리는 D·E·F관과 소장품 전시, 대관 등을 하는 소규모 A·B·C관으로 구성된다.

미술관은 소장 작품전을 주로 개최하는 가운데 정기 기획전, 각종 미술 단체 초대전, 지역 언론사와 연계한 전국 순회전 등 폭넓게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불상 조각가 운케이(運慶)가 12세기 말에 제작한 '목제불상 기획전'을 주최해 크게 주목 받았다.

로비에서 만난 쇼코 코바야시 학에서는 "아마구치현립미술관은 '아마구치현의 특색을 담은 미술관', '현민이 참여하는 열린 미술관'을 방침으로 내걸고 설립됐다"며 "아마구치현에 연고가 있는 작가의 대표 작품을 수집·보존·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관측은 1층 가장 깊숙한 곳에 가즈키 야스오 공간(B관)을 만들어 작품 1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의 역류 체험을 그린 '시베리아' 시리즈 등 대표 유화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C관에서는 '일본의 산전초목'을 주제로 셋슈(雪舟)의 '보쿠규즈'(牧牛圖)와 운코쿠파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다다미(돗자리 방바닥)를 설치해 차분히 앉아서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

한 점이 눈에 띄었다.

A관에서는 소장작품 중 1900년대 초 프랑스 흑백 사진을 따로 모아 전시하고 있었다.

D·E(이상 2층)·F(1층)관은 복층형 구조를 하고 있다. 관주시립미술관도 복층형 구조를 하고 있지만 2층에서 1층 일부 공간만 내려다 보이는 것에 비해 E관에서는 F관 전체가 보여 신선했다. D~F관에서는 프랑스 랩스미술관 소장작품을 선보이는 '화려한 프랑스 회화'가 열리고 있었다. 정물화부터 프랑스 건축을 그린 그림, 역대 왕·왕비 초상 등을 선보였다. 평일임에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난 2002년부터는 현민 자원봉사자 서포트 스태프 제도를 도입해 자원봉사자들이 미술관 곳곳에서 관람 안내를 도왔다. 또 전시 연계 교육 강좌, 실기 지도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처럼 아마구치현립미술관 로비에서도 멋진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로비를 개방적으로 꾸몄다. 지난 2014년 로비에 개장한 카페 'La Plume Bleue'(프랑스어로 '푸른 날개'라는 의미)는 지역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또한 미술관 산책길 곳곳에는 조형소나루, 조각작품을 배치해 걷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아마구치시가 지난 2007년 현립미술관·가메야마공원 미화 봉사모임·시 조경가협회·아마구치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멋진 미술관 숲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한 결과다. 1층 뮤지엄숍에서는 아트상품 뿐 아니라 아마구치 특산품인 덕지 종이를 재료로 제작한 공예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IANG HOTEL